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다만 할 뿐 - 정윤미
- 05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JTS는 고리뿔 - 이재곤
- 11 싸바이다, 라오스
학교 가는 길 - 배해정



국내소식

- 16 함께하는 사람들
거제도애광원 봉사를 다녀와서 - 이성우
또 하나의 즐거움 - 최진연
낙숫물로 바위도 뚫을 남자 - 권영숙



활동터소식

- 22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 26 후원인의 소리
- 27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패널날 2014. 11. 3 **패널이 범람**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패널터** JTS
도움이 현희연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김현지 김재협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보건위생 교육영상을 보는 학생들



다만 할 뿐 - 유치원의 보건위생 영상 교육

매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유치원 앞마당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아이들이지만, 정작 자기 손은 깨끗이 씻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처가 덧나 나올 때까지 한동안 고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정윤미 활동가

요즘에는 매일 아침 마을 유치원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러 다니고 있다. 며칠 전에도 유치원 점검을 나서려는데, 병원 담당자가 이왕 다니는 길에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동영상 보여주면 어떨겠냐고 제안을 했다. 마침 지바카 병원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계획하느라 미리 준비해둔 영상자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앞에 나서서 손 씻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주거나 영상물을 다시 돌려보기도 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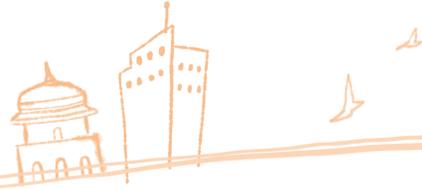
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유치원을 방문하는 길에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흔쾌히 동의했다.

그 날부터 손 씻기와 쓰레기 버리기, 깨끗한 물 마시기 같은 위생에 관한 영상자료를 준비하고 마을 유치원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보건위생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라홀나가르 마을의 유치원이었다. 유치원 교실에는 30여명의 아이들이 앉아있었다.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설치해서 위생교육을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화면에 집중했다.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앞에 나서서 손 씻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주거나 영상물을 다시 돌려보기도 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조막만한 손을 비비적거리며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보건위생 교육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이번 영상교육이 계기가 되어 아이들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깨달아, 손 씻기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교육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자드비가 마을에서도 보건위생 교육을 진행했다. 유치원에서 영상을 틀자,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까지 유치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어느새 아이들과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로 유치원이 가득 차 있었다.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건위생 교육도 진행했고, 주민들이 모두 모인 김에 조혼 방지를 위한 교육영상도 추가로 시청했다.

이곳 동게스와리에는 아직 조혼 풍습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은 16세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18세가 되면 같은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두 번째 결혼을 한 후 첫 아이를 임신한다. 그러다보니 이곳에서는 23세나 24세 정도 되는 젊은 여성들도 서너 명 아이들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혼으로 일찍 출산을 하는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한다. 영상교육 중에 “우리는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딸들은 20살 이후 성인이 되면 결혼을 시키자”하는 말에, 한 아주머니는 아이를 안고 영상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6살 정도로 보이는 딸아이를 더욱 꼭 안았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마을 보건위생 교육이었지만, 한 번에 큰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교육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갑자기 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별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는데, 돌아켜보니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는 심보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은연중에 당장의 성과위주로 선택하고 판단했던 삶의 방식을 반성하게 된다.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무언가 꼭 이래야 한다고 바라는 마음 없이, ‘다만 할 뿐’이다.



평화로운 만타부 마을



JTS는 꼬리뿔(구두쇠)

- 선생님들은 JTS를 구두쇠라고 부른다.

만타부 마을 학교가 개교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만타부 학교는 2006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JTS 활동가들은 개교기념식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곤 활동가가 대표로 춤을 춘 것 외에는 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랑가이(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이재곤 활동가

만타부는 JTS 농업 훈련 센터에서 6~7km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만타부 마을과 JTS의 인연은 2006년 8월 25일, 만타부 학교의 준공식이 끝난 이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시 JTS의 현지 코디네이터였던 '도동'씨를 통해 지방정부(바랑가이)로부터 만타부 마을의 학교 건축 요청을 받아 검토를 해보니, 만타부 마을에서 근처 학교를 가려면 낭떠러지 같은 길을 2~3km 정도 걸어내려가야 했고, 큰길에서 학교까지 20분을 더 걸어야 했다. 초등학생들이 매일 이런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기는 위험천만한 일이라, 마을에 학교를 짓기로 결정했다.



만타부 학교 준공식

주민들의 협력으로 단기간에 지은 만타부 학교

만타부 주민들은 학교를 짓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어 본 경험이 없었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시작 전에는 다음 달이라도 다 지어낼 것 같았다가도, 농사철이 되거나 사람들이 안 나와서, 아니면 치안문제가 발생해서 1년 이상 걸린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예 완공을 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든 학교가 지어졌다고 해도 정부의 협조와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없으면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보자면 만타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동과 단합이 JTS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단기간에 학교 건축을 마칠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닐까 한다.



마을 회의 진행중

이웃이 된 JTS

2008년부터는 다물록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에 따라 정기적인 문구류 지원을 빼고는 만타부 마을을 자주 방문을 할 수 없었다. 2010년 마을에서 불과 몇 km 떨어진 곳에 JTS 농업 훈련 센터를 짓고 나서야 만타부가 중점 개발 마을이 되면서 2~3주에 한 번 꼴로 꾸준히 방문하게 되었다. 행사가 있으면 매주 방문하기도 하다 보니, 보통은 마을을 방문하면 선생님들이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지만, 만타부 선생님들은 또 왔다는 식으로 농담을 건넨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손님 대접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옆 동네 이웃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인연이 오래되었고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식의 지원은 오히려 마을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러다 보니 마을 방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대화는, 선생님이 JTS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JTS는 그렇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활동가에게 야채를 건네주는 주민들

JTS는 꼬리뿔(구두쇠)

지금까지 만타부 마을에 지원한 물품들을 살펴보면, 치약, 기본 상비약, 씨앗, 못, 쌀, 야채 몇 가지 정도가 전부인 것 같다. 억 단위의 예산을 사용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교하면 초라한 지원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금쪽같은 지원물품들이다.

치약은 위생사업의 일환이자 첫 걸음으로, 활동가가 방문할 때마다 직접 아이들에게 조금씩 짜주면서 함께 양치질을 하고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씨앗은 학교 주변의 텃밭 개발을 위해 지원했는데, JTS 현지 직원과 함께 방문해 등고선을 따라 밭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심는 법을 알려주었다. 주민들의 주식이 고구마나 카사바, 옥수수뿐이고 외지에서 사먹는 건 몇 가지 통조림 음식이 전부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했지만, 야채나 영양제를 직접 주기보다는 씨앗을 제공하고 텃밭 개발을 지원하여 자연스럽게 영양을 개선할 수 있게 하려는 전략이었다.



씨앗 심는 교육을 진행중인 현지 활동가 미오씨

처음에 66명에 불과했던 만타부 학교의 학생이 지금은 156명이 되었다. 임시 교사로 1명뿐이었던 선생님도 현재는 정규교사 2명과 임시교사1명이 파견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반만 운영하던 학교가 유치원부터 4학년 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 수가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학생이 늘어 교실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학교 추가 건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바로 학교를 짓기 보다는 임시학교를 지어 학생 수 추이를 지켜보고 건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시학교의 건축 재료는 마을에 있는 대나무로 정하고, 건축 인력은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해결했다.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쌀로 밥을 해먹으며 짓다보니 임시학교 건물이 금세 쑥쑥 올라갔다. 예산이 없다고 물러서는 지방정부를 주민들과 함께 설득해서 결국 지붕도 올렸다. 이 과정에서 JTS가 직접 지원한 것은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구하기 힘들었던 못 정도였다.



못을 지원하는 JTS 활동가



벽체가 완성된 만타부 임시학교 교실

최근에는 필리핀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양섭취를 골고루 하도록 권장하는 날이자, 이걸 빌미로 마을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도 한 영양섭취의 날(Nutrition Day) 행사가 있었다. 도시의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먹지만, 만타부 마을에서는 늘 먹던 야채를 모으는 정도밖에 안되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까지도 행사에 참석해 음식을 나눠 먹는 상황이라 양도 부족했다.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기준으로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결과, JTS도 쌀과 야채 같은 간단한 식재료를 지원했다.

이러니 “JTS는 꼬리뿔(구두쇠)”이라고 선생님들이 농담을 할만도 하다. 만타부 마을은 가난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넘쳐난다. 식수용 물탱크도 하나 더 있어야 하고, 마을 방법을 돌 때 필요한 신발과 손전등도 있어야 하고, 물소도 더 필요하고, 양어장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을 하면

마을 주민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JTS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우선 마을 주민과 선생님, 지방정부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보자고 이야기한다.

변하기 시작하는 만타부

최근 만타부 학교에 '마롬'이라는 선생님이 부임해 왔다. 목공기술을 갖고 있어서 오자마자 교사숙소에 샤워실을 만들더니, 주민들과 담소를 나눌 배란다도 똑딱 만들어 냈다.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라 활동가가 마을을 방문하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끝도 없이 이야기하곤 했다. 이에 JTS 측에서는 오히려 'JTS의 지원 없는' 마을 개발을 우선 진행해보자고 역제안을 했다.



새로 부임한 마롬 선생님

JTS의 제안을 듣고 마롬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집마다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물길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강통을 팔아서 모은 돈을 마을개발 기금에 보태고, 몇 가구 단위로 밭을 일구고 군청에서 얻어온 씨앗을 심어 텃밭도 만들었다. 이제는 밤 10시부터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마을 순찰도 돌고 있다.

지금도 만타부 마을의 개발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다.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 JTS 농업 훈련 센터에서는 리보나 군청이 준비한 농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만타부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석했다.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JTS의 지원이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다. JTS는 그 옆에서 조금 거들 뿐이다.

마무리 공사 중인 학교 전경



학교 가는 길

- 개학과 새 사업, 또 다른 시작

우기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9월. 잠들어 있는 듯 한가하고 조용하던 마을이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우기에 맞춘 3개월간의 긴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르지 않아 진흙투성이인 길을 따라, 크게 자란 벼 사이로 논두렁길을 따라,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학교에 갑니다. 재잘재잘 한껏 들뜬 아이들의 애깃소리에 온 동네가 활기로 가득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배혜정 활동가

콕농부아 마을 주민들과 JTS가 함께 힘을 모아 짓고 있는 학교에서도 첫 수업이 열렸습니다. 아직 페인트칠과 빗물받이 설치, 계단 공사, 화장실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지만,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새 학교에서 수업을 먼저 시작하자고 뜻을 모아 미장공사까지 마무리된 교실 두 칸에서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평일에는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주말에 페인트칠 등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추수를 시작하는 11월이 되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마을 한 쪽에 있는 임시건물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 수업을 진행하고,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은 이웃마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이웃마을 학교로 가는 길도 아이들에게는 수월하지 않은 길입니다. 땅이 무르고 비가 조금이라도 내렸다면 진흙탕이 되어 발이 푹푹 빠지는 길을 30분 이상 걸어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해도 저 멀리 군내까지 돌아서 나가야 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족히 30분은 걸리는 거리지요. 너른 눈을 가로질러 지름길을 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이 온통 젖어서 학교에 도착하지만, 씻을 수 있는 급수시설이 없어 젖은 채로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웃마을 학교로 가는 길

이웃마을 학교에 답사를 다녀오는 길에 자전거 한 대를 같이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솜씨 좋게 울퉁불퉁한 길을 잘 달리다가, 길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 나오니 동생이 얼른 뒷자리에서 내려옵니다. 형은 먼저 자전거를 몰고 가 동생을 기다리고, 동생은 자기 가방과 형의 가방을 짊어 메고 걸어가서 다시 뒷자리에 올라타입니다. 사이좋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에 참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학교가 완공되고 운영이 안정되

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온전히 제 모습을 갖춘 학교를 보

고 있노라면 1년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공정 각 단계마다 활동가들의 수많은 고민과 고난이 있었고, 기술자들의 굵은 땀방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에, 벽돌 한 장, 기둥 하나, 문짝 하나에도 정이 갑니다.



사이좋은 형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을에 와서 문제는 없는지, 더 필요한 자재가 있는지, 다음 공정은 언제 진행할 건지 대화를 나눕니다. 애기거리가 정 없으면 “피곤하시죠?”, “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네더라도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을 주민들을 칭할 때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단어가 더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이장님 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으레 설거지나 뒷정리도 돕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손님이니까 그냥 앉아있으라고 이장님 부인인 란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었는데 말입니다.

얼마 전, 활동가 한 명이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바시 세레모니’를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서 라오스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인데, ‘화이푸켄’이라는 실 팔찌를 채워주면서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 등을 빌어주는 의식입니다. 오후가 되니 마을 할머니 두어 분이 오셔서 의식에 사용하는 바나나 잎 화환을 정성스레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들도 오셔서 모두가 조금씩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 댁을 가득 채울 만큼 모였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매주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잘 돌아가라고 여비까지 조금씩 끼워 넣어 주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따뜻

한 눈빛에서, 어깨를 다독이는 손길에서, 마주잡은 두 손에서 마을 분들의 깊은 애정이 느껴져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활동가가 돌아가고 나서도 마을에 갈 때마다 잘 지내는지, 전화는 왔었는지 물어주시고, 좋아했던 음식을 보면 얘기를 꺼내시곤 합니다.



바시세레모니

사람들이 사업 참여자, 수혜자, 이해관계자 등이 아니라 가족이고 친구가 되니, 이곳에서 '해야 하는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곳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JTS는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처음 도착할 때부터 수없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라오스는 여전히 OECD DAC(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으로 LDCs(최빈국)에 속하고, 일 평균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은 2012년 기준 30.3%에 달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구호가 필요할 정도로 굶는다거나 상황이 열악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메콩강을 따라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인구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부 참파삭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서 시설이 매우 열악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마을마다 초등학교는 하나씩 있는 편입니다.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학교나 보건소를 똑딱 지어주고, 외국에서 들어온 좋은 물건들을 보급해 주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곳의 속도에 맞추어 스스로 발전해나가도록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머릿속 고민들은 어느새 묻히고 맙니다. 데이트 하러 가느라 예쁘게 차려 입은 아가씨가 옷에 온갖 구멍물이며 흠땀물이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시내에 나갈 수 있게 길을 잘 닦아주고 싶고, 이장님 손자 '맹'이 가끔은 마음껏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통비 걱정 없이 팍세(Pakxe) 시내로 일을 보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놀다가 피부가 까지고 베이고서도 씻지도 않고 피를 스욱 닦고 마는 아이들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학교에 구급약품상자 하나 정도는 놔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소박한 욕심이 생깁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최빈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인 국가성장 및 빈곤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기구 및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활발한 개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JTS 라오스 지부에서는 이러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시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필요, 욕구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곡농부아 마을이 있는 수쿠마 군 뿐 아니라 참파삭 주에 있는 다른 군들, 그리고 참파삭 주와 이어져 있는 아따쁘 주까지 영역을 넓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JTS를 알게 되었고, 어느 마을에 학교가 필요하다, 어느 마을에 와줄 수 없느냐 등등 소개를 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라오스 지부에서는 '교육'과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건축 지원이 필요한 마을들과, 우물이나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인연들이 기대됩니다. 이 곳 라오스에서 JTS 활동가들이 이 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거제도애광원 봉사를 다녀와서

함께하고 글쓴이 마산지부 - 이성우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4번 국도 끝자락에서 장승포항으로 내려가기 전, 해금강 방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적장애인 재활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한 총 6개 시설에서 2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남지역 지부의 활동가들은 돌아가면서 거제도애광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광원 친구들을 처음 만난 건 올 4월 초, 이곳 남녘에서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꽃의 향연과 축제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 봉사활동을 했던 곳은 지적장애인들이 재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수익사업 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밝게 인사하는 생활인들과 함께 간단한 상품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중증 장애인들의 식사를 돕는 봉사를 했습니다. 평소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곤 했는데, 이들을 보니 그런 말이 썩 들어가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애광원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 8월 22일, 한여름의 늦더위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산지부 분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과 청년들이 함께 하게 되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어서 그런지 처음 방문 때 놓쳤던 것들이 들리고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애광원 식구들을 '장애인'으로 부르지 말고, '생활인'으로 통칭하여 불러달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생활인들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열 살 정도로 보였던 한 생활인은 발육부진으로 인해 그렇게 보일 뿐, 실은 서른 살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거제도애광원을 떠나면서, 단지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하나에도 새삼 감사하게 됐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봉사활동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순간순간 마다 작은 감동과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낙숫물로 바위도 뚫을 남자

- 서울 노원 지역 활동가 손연우님

인터뷰 정리 서초지부 - 권영숙

지난 10월 14일 저녁, 노원지역 JTS 거리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손연우님을 만났습니다. 보름간의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탓인지 얼굴이 많이 핏색 하셨습니다.

손연우님은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기술자이시고,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부인과 초등학교 2학년 된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글 정리는 딱딱하게 했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는 형식을 벗어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딪혔었어요. JTS의 거리모금도 돈 안 받고 하는 봉사다 보니, 명예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습니 다. 국토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Q JTS 세계시민교육도 받으셨고, 거리모금도 일 년 동안 매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시면서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감동스러웠을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A 네, 많았죠. 한 번은 노원 문화의 거리에 JTS 캠페인 부스와 엠프를 설치하고 있는데, 모금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십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지갑을 꺼내 지갑에 있던 돈을 다 털어서 모금함에 넣고는 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의 거동을 자세히 보니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이나 감사 보다는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보호자가 와서 돌려 달라고 따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그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후원자를 우려하고 연민의 감정으로만 바라본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Q 보름동안 홀로 국토순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 직장인들이 한 달간 휴가를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토순례를 하시게 된 배경과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A 국토순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며 삼국시대의 불교 성지를 찾아 떠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토순례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11시간동안 35km를 걸으면서 오히려 저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시작은 통일을 염원하고 떠난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강했더라구요.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마음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

Q 거리모금 캠페인을 할 때 주로 혼자서 문화공연을 하시죠? 손연우님이 지난번 인사동 거리모금 캠페인 때 노래 부르시는 걸 본 적 있어요. 노래 부르면 더 잘 되나요?

A 거리모금 캠페인에 처음부터 기타를 들고 나가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당시에 기타 동호회 동생들과 거리공연을 계획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모르면 용감하다고 겁 없는 도전을 했던 거죠.(웃음)

Q 저는 거리모금을 나갈 때마다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금함을 내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리모금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A 저도 낯선 사람 앞에 다가가서 모금함을 내밀기가 쉽

지는 않았어요. 거리모금을 20회 이상 하고 나서야 면역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서히 제 자신도 변했구요. 처음에는 국제 구호단체라는 것으로 저를 포장해서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최대한 거리 모금하는 목적을 전달하려는 생각에 기계처럼 말을 빨리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의 사람들이 아들로 보이고, 부모로 보이고,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린거죠.

인터뷰 하면서 손연우님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봉사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다는 손연우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노원 지역의 거리모금이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 느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큼니다. 그 한사람의 꾸준함이 노원지역의 거리캠페인이 매주 진행될 수 있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실천, 참 단비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손연우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 - 두북 정토마을 자원봉사 이야기

함께하고 글쓴이 대구경북지부 - 최진연

한 달에 두 번, JTS 대구지부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두북 정토마을로 봉사활동을 간다. 두북 정토마을은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JTS가 폐교 건물을 임대하고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이 곳에 방문하면 JTS의 시설을 관리하고 복지 사업을 담당하는 전경숙 활동가가 두 팔을 벌려 고향집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



영남지역 각 지부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은 전경숙 활동가의 능숙한 지휘 아래 근처 마을을 찾아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의 목욕과 집안 청소 같은 일을 척척 해낸다. 어르신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해 대구지부 봉사자들이 만들어 온 반찬도 간식과 함께 준비해 드리고, JTS의 구호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정리도 돕는다.

잠시 짬을 내어 배추와 고추를 기르는 작은 텃밭에 들러 밭을 고르고 잡초도 뽑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개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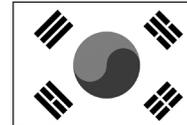
일상에서 벗어나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려 간다고 할 만큼, 이곳에서의 봉사활동은 삶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사례발표 중인 송지홍 활동가

1. 필리핀 재난대응 워크숍 참석

지난 9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주최로 필리핀 현지 재난대응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는 현지의 인도적 지원 수행기관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 NGO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필리핀의 재난대응 체계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워크숍에는 JTS의 송지홍, 오성근 활동가가 참석하여 마라뵈 조기복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JTS의 사례는 참석자들로부터 지역 맞춤형 재난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김기진 JTS 공동대표

2. 화이트밴드 캠페인 참석

지난 10월 14일, 올해로 열 번째 열리는 화이트 밴드 캠페인 현장에서 JTS의 김기진 공동대표가 캠페인의 역사와 목적을 설명하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화이트 밴드 캠페인은 UN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10월 17일)을 기념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올해는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주최로 대교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강의

3. JTS 세계시민 교육 개강

JTS 세계시민 교육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영남, 호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JTS 세계시민 교육은 지구촌의 현안인 기아, 질병, 문맹 및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개인이나 국가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

4. 양평초등학교 돼지 저금통 분양 및 교육

양평초등학교 김은경 선생님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2일 양평초등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JTS의 활동과 간단한 역사, 국제 구호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분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내가 아닌 남을 돕고자 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 소중한 것 느껴졌습니다.



India 인도



아자드비가 정부학교에 물품 전달

1. 정부학교 학용품 지원

수자타아카데미는 본교를 중심으로 15개 마을에 유치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천민마을인 아자드비는 학교 진학률도 낮고 학업 수준도 낮기 때문에, 마을 어린이의 진학률을 올리기 위해 정부학교 학생들에게도 공책과 펜을 지원했습니다. 학용품을 지원하면서 정부학교 운영의 어려움도 듣고, JTS가 정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정부학교와 수자타아카데미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손씻기 교육 영상을 보는 아이들

2. 유치원 손씻기 교육 진행

수자타아카데미에서 활동하셨던 이유진님께서 힌디어로 된 보건위생 교육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점검차 방문한 유치원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상영하였습니다. 작은 화면이지만 영상을 본다고 하니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손은 언제, 무엇으로 씻어야 하나요?" 물으니,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요", "놀이 나체요", "자기 전에요", "비누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Philippine 필리핀

1. 마라뿔 학교 준공식

8월 20일에는 필리핀 사말 섬 마라뿔 지역에서 초등학교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마라뿔 학교재건 사업이 집행되어, 총 15개 학교 80칸의 수리와 신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는 15개 학교 전체의 준공식을 진행할 수 없어서, 마라뿔 초등학교, 마라뿔 고등학교, 오스메니아 초등학교, 오스메니아 고등학교, 갈루와안 초등학교, 레가스피 초등학교에서만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이 진행되는 학교마다 태풍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라뿔 센트럴 초교 준공식

2. 만타부 개교기념일 행사 참석

지난 10월 1일, 만타부 학교에서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는 학교가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는 마을 전통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만타부 마을 중 6개 푸록(Purok, 한국의 리보다 작은 '통' 단위) 대표들도 참석하여 개교기념일 축사를 했습니다. 학년별로 장기자랑을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바랑가이의 지원을 받아 밥을 짓고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을 모아 간소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개교기념일 식순 중 국가제창



Laos 라오스



교실 내부

1. 콕농부아 학교 수업 개시

콕농부아 학교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9월 새 학기에 맞춰 수업을 시작하기를 위하여, 아직 페인트칠과 마무리 작업은 남았지만 교실 2칸을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일에는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고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내부 페인트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학교이지만, 오전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 잡초도 뽑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학생들은 마냥 신이 난 모습입니다.



우똌싸이마을 이장님 인터뷰

2. 아따쁘주 지역 답사

라오스 지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참파삭주를 비롯하여 이웃하고 있는 아따쁘주, 세콩 주까지 범위를 넓혀 마을 단위의 급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따쁘 주는 80%가 산간지역이고 소수민족 비율이 높아서 타 지역에 비해 지역 개발이 늦은 편이라,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아따쁘 주 농촌지역개발부서를 방문하여 통계자료를 얻고, 우똌싸이 마을의 급수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향후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산간지역 마을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3. 타단체 활동가 라오스지부 방문

대한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태화복지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활동가 3명이 JTS 라오스 지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군교육청 회의를 참관하고, 현재 사업진행중인 콕농부아 마을을 방문하여 학교건축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JTS와 지부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지원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며, 수도권과 지방 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박종화, 권도영, 정윤미, 민도연, 박연화, 김명숙, 신예슬
필리핀	민다나오 : 김희자, 이재곤, 박영일 / 마라뿔 : 송지홍*, 임희성, 원석환, 오성근
라오스	배혜정,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북한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길.
- 배경아 -

손진우, 손진준 생일 축하하며
배고픈 어린이와 함께
- 손봉모 -

김서연 7살 생일 기념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후원합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길 기원합니다.
- 김서연 -

어머니조철선님께서 남동생의 사고보상금으로
굶주리는 어린이를 돕기위해 후원
- 조철선 -

대학새내기 딸의 동북아역사대장정
답사를 감사드리며...
- 이인정 -

음력 7월5일 부모님 기일을 맞이하여 영가의 천도 발원하오니 온갖 굴레와 고통을 벗어나 해탈하여지이다.
- 김연수 -

해안이의 4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좋은 일에 쓰이도록 해주세요.
- 김영경 -

아들 태영이의 7세 생일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을 회향합니다.
- 이수연 -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진실하게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먹을것이 없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한모금의 물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심은아 -

군대간 첫 아들이 이모가 준 용돈을 후원함.
- 강선경 -

아버님 윤병용영가 극락왕생발원
- 윤철상 -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특히나 배고픔과 육체적 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혜승 -

택양전씨 할머니의 기일을 기리며 보시합니다.
- 최규상 -

손녀 영은이 생일축하
- 김영은 -

나와 나 이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하여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태 -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입니다.
- 김미순 -

이 돈이 조금이나마 제 3세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형섭 -

현장에서 땀 흘리며 힘써 주시는 봉사자분들 수고 많으시구요.
작지만 저의 보탬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미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무기명 -



특별후원금 (2014. 08. 01. ~ 2014. 09. 30.)

2014년 8월 복 한 결 연

고광남	100,000
고광희	35,000
국유하	20,000
권호임	50,000
김경미	30,000
김금숙	50,000
김서연	200,000
김승희	30,000
김영범	1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30,000
김윤환	1,000,000
깨장384차	300,000
목인봉(김홍임)	80,000
문경숙	20,000
민정희	20,000
박동민	50,000
박선철	20,000
박선희	10,000
박완임	10,000
박장연	40,000
박희달	1,000,000
배경아	1,000,000
신재영	30,000
웰브랜드	50,000
이미란	10,000
이서영	140,000
이원주	31,001,004
이진일	10,000
장현주	100,000
정민호	40,000
정연한	20,000
최규상	100,000
최상필	100,000
하애란	120,000
하지민	10,000
허대영	10,000
홍석운	50,000
강영애	50,000
강희란	10,000
김규리	4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진용	30,000
김태윤	100,000
고춘복	10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영애	50,000
강희란	10,000
김규리	4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진용	30,000
김태윤	100,000
고춘복	100,000

김범석	20,000
김상윤	20,000
김승희	30,000
김영호	3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30,000
김정미	100,000
김재환	151,850
김태윤	100,000
나경주	100,000
나희원	100,000
민정희	30,000
박기홍	100,000
박선철	50,000
박완임	10,000
박자현	20,000
송미경	1,000,000
수미정	10,000
신유빈	10,000
신재영	10,000
웰브랜드	100,000
윤장아	300,000
이광준	30,000
이규경	20,000
이미란	20,000
이서영	13,120
이주은	10,000
이주형	10,000
장현주	100,000
정민호	30,000
정연한	10,000
정진희	50,000
정현욱	30,000
조대경	50,000
하지민	10,000
허수호	10,000
홍석운	10,000
강영애	50,000
강희란	10,000
김규리	450,000
김승희	30,000
김유진	20,000
김진용	30,000
김태윤	100,000
나희원	100,000

민정희	20,000
박선철	50,000
신동현	80,000
신재영	10,000
웰브랜드	50,000
이진일	5,000
장현주	100,000
정민호	20,000
홍석운	10,000
김은숙	100,000
김이숙	500,000
김익현	100,000
김정수	50,000
김정숙	3,000,000
김정연	100,000
김정희	20,000
김태윤	100,000
김한수거제	200,000
김현순	38,790
김현지	1,000,000
김혜경	100,000
김혜란	21,840
김혜례	60,000
김효은	100,000
나경자	75,000
나종용	100,000
나희원	100,000
남예준	50,000
단경스님	100,000
거제양평선	3,000,000
고광남	100,000
고려인생태권도	150,000
공경향	100,000
권호임	5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란	60,000
김경희	27,020
김광선	50,000
김광현	100,000
김금주분당	5,000
김미영	100,000
김민경	20,000
김봉덕	200,000
김봉진	50,000
김성순	200,000
김성신	100,000
김성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연수	50,000
김영은	100,000
김영임	13,000
김용규	5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20,000
김유천	100,000
김윤홍	120,000

JTS 전체사업

0102994123	26,170
강경민	100,000
강민준	100,000
강선경	50,000
강수정	30,000
강신호	100,000
강인숙	10,000
강희란	10,000
거제양평선	3,000,000
고광남	100,000
고려인생태권도	150,000
공경향	100,000
권호임	5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란	60,000
김경희	27,020
김광선	50,000
김광현	100,000
김금주분당	5,000
김미영	100,000
김민경	20,000
김봉덕	200,000
김봉진	50,000
김성순	200,000
김성신	100,000
김성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연수	50,000
김영은	100,000
김영임	13,000
김용규	5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20,000
김유천	100,000
김윤홍	120,000

김은숙	100,000
김이숙	500,000
김익현	100,000
김정수	50,000
김정숙	3,000,000
김정연	100,000
김정희	20,000
김태윤	100,000
김한수거제	200,000
김현순	38,790
김현지	1,000,000
김혜경	100,000
김혜란	21,840
김혜례	60,000
김효은	100,000
나경자	75,000
나종용	100,000
나희원	100,000
남예준	50,000
단경스님	100,000
거제양평선	3,000,000
고광남	100,000
고려인생태권도	150,000
공경향	100,000
권호임	50,000
금삼승민승필	31,000
김경란	60,000
김경희	27,020
김광선	50,000
김광현	100,000
김금주분당	5,000
김미영	100,000
김민경	20,000
김봉덕	200,000
김봉진	50,000
김성순	200,000
김성신	100,000
김성희	30,000
김승희	30,000
김연수	50,000
김영은	100,000
김영임	13,000
김용규	5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20,000
김유천	100,000
김윤홍	120,000

송평수	38,990
송현주	50,000
신동현	25,000
신명훈3949	27,500
신영자	50,000
신재은	10,000
신한58741489	1,000
심민경	100,000
심유현	100,000
양명숙	100,000
양자상	500,000
엄경희	30,290
연호순	100,000
오영옥	40,000
오장욱	100,000
우남준	50,000
유해인	100,000
윤정환	10,000
윤철상	250,000
이난진	50,000
이다경	500,000
이명숙	500,000
이미향	10,000
이범인	137,510
이소영	3,000,000
이연재	35,000
이영주	10,000
이오숙	50,000
이원형	10,000
이윤희	55,000
이윤희	100,000
이은혜	50,000
이은노	28,710
이정애	200,000
이주연	50,000
이주영	50,000
이주영	50,000
이택건.이정건	50,000
임기자	30,000
임남숙	1,000,000
임선희	500,000
임양호	350,000
임학진	20,000
장경숙	30,000
장세영	20,000
장수진	100,000
장순석	10,000
장영애	100,000

2014년 9월 복 한 결 연

장준호	30,000
전해빈	183,670
정경아	30,000
정교필	100,000
정남스님	100,000
정미란	2,000,000
정민스님	100,000
정분스님	100,000
정선옥	33,350
정소연	50,000
정숙경	50,000
정환스님	100,000
조대영	85,000
조재희	100,000
조창균	30,000
조철선	10,000,000
주목스님	100,000
주소피아	50,000
죽문죽살감사	10,000
청강스님	100,000
최명옥	100,000
최복림	100,000
최선도	100,000
최수연	10,000
최재연	30,000
최재익	30,000
최희범	79,400
태희스님	100,000
통영정양순	33,000
평촌장태훈	100,000
하돈규	50,000
하재남	500,000
하지민	10,000
한지민씨뎨	1,000,000
함미정	30,000
허세황	50,000
허영선	100,000
현승스님	100,000
홍석운	10,000
홍어진	100,000
황영순	5,000
황영순	5,000
황정숙	20,000
고귀영	50,000

해외JTS 후원금

(2014. 09. 01. ~ 2014. 09. 30.)

고재용	30,000
김경미	30,000
김미순	50,000
김미자	50,000
김상윤	20,000
김승희	50,000
김아사	30,000
김영경	50,000
김운하	50,000
김장미	200,000
김혜경	29,820
깨장 1207차	240,000
나경원	50,000
남경현	50,000
목인봉(김홍임)	50,000
무기명	20,000
무기명	20,000
문경민	48,000
문경숙	20,000
문형순	50,000
박기욱	100,000
박동민	30,000
박별님	20,000
박완임	10,000
박인범	100,000
박희달	1,000,000
서호재	50,000
신재영	20,000
심은아	50,000
안차애	100,000
원화영	100,000
윤난영	300,000
윤미선	100,000
윤영주	30,000
이미란	20,000
이서영	110,000
이수연	100,000
이인정	50,000
이진일	10,000
이현정	10,000
일계124차	2,764,630
임은민	30,000
정영순	30,000
정백기	100,000
정연현	20,000
정혜승	20,000
제순돌	20,000
조재희	50,000

청년동북아9조	24,000
최순희	50,000
하지민	10,000
허대영	1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영애	50,000
고재용	20,000
권경아	250,000
김미정	30,000
김민우	10,000
김민철	10,000
김산형	10,000
김승희	30,000
김운하	50,000
김태영	20,000
남경현	50,000
무기명	20,000
문형순	50,000
박별님	10,000
소진호	30,000
신재영	10,000
심은아	30,000
영가황중택조	50,000
이광준	200,000
이규경	10,000
이미란	20,000
이서영	95,640
이인정	50,000
이진일	5,000
임성희	10,000
임은민	30,000
정기윤	30,000
정백기	200,000
정윤점	300,000
정혜승	10,000
조재희	50,000
하지민	5,000
해륜스님	500,000
황두현	120,000
필리핀	
강영애	50,000
권경아	250,000
김민우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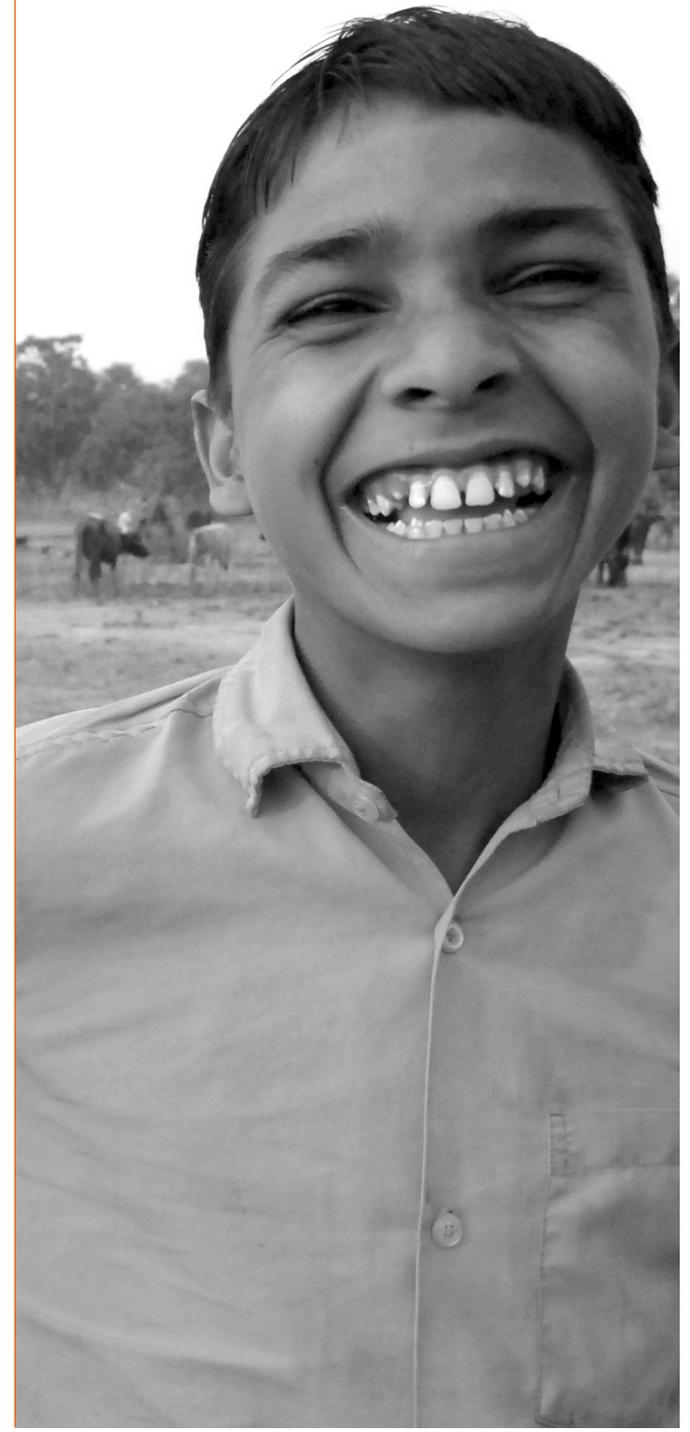
김선형	10,000
김승희	30,000
김태영	20,000
나경주	50,000
남경현	50,000
무기명	20,000
무기명	10,000
박별님	10,000
박형섭	50,000
신재영	10,000
심은아	20,000
이미란	10,000
이인정	50,000
임성희	10,000
임은민	10,000
정백기	100,000
정혜승	10,000
하지민	5,000
JTS 전체사업	
김미숙	100,000
강민숙	160,000
강인숙	10,000
고귀영	50,000
고효숙	100,000
구다인	100,000
권영세	50,000
금상승민승필	30,000
기장희현숙7413	100,000
김경택	1,000,000
김경희	5,000
김나연	20,000
김도엽	100,000
김동우	20,000
김미영	100,000
김봉주	500,000
김성희	30,000
김소영	30,000
김순실차윤실	220,000
김승희	30,000
김시은	10,000
김시형	50,000
김영미	500,000
김영선	200,000
김영숙	500,000
김영임	1,000

김운하	10,000
김원태	100,000
김유진	200,000
김은정	5,000
김은주	50,000
김장미	200,000
김정수	50,000
김자연	200,000
김자연	10,000
김진철	5,000
김태영	10,000
김태형	300,000
김현지	250,000
김홍필	200,000
김효운	100,000
김희자	184,500
나경원	50,000
나경주	50,000
남경현	50,000
노원중2-2반	130,070
돌망이방울아간강하차	100,000
무기명	10,000
박경자	6,000,000
박미혜	100,000
박별님	10,000
박성래	100,000
박옥경	100,000
박완임	10,000
박은옥	1,000
박정숙	300,000
박종천	50,000
박종현	200,000
박창	10,000
박태근	1,000,000
박태화	500,000
방영옥	100,000
백서이	50,000
산들바람공부방	23,470
서미옥	10,000
서세은	50,000
서호재	1200,000
선민인터킷고JTS	200,000
설수정	100,000
손봉모	200,000
손영수	1,000,000
손영훈	100,000

송정숙	150,000
수미정	10,000
신동현	10,000
신영근	50,000
신용남	500,000
신용섭	200,000
신재영	10,000
신재은	10,000
신학봉장신덕신총원외	50,000
신혜경	500,000
심은아	10,000
안양 신유정	100,000
안용주	5,000
양윤석	100,000
양재연	100,000
염윤주	10,000,000
여용렬	990,000
오미경	50,000
오영옥	40,000
우남준	50,000
우연수	10,000
우원석	20,000,000
우주성	100,000
우지운	200,000
우희수	10,000
유소영	10,000
유승자	300,000
유애경	60,000
유영만	108,000
윤영희	100,000
윤인옥	200,000
이규숙	20,000
이기열	500,000
이길림	20,000
아나연 노연주 권상조	30,000
이대일	19,570
이미경	1,000,000
이미란	20,000
이미향	10,000
이법민	200,560
이석매	50,000
이승은	10,000
이은규	100,000
이인정	50,000
이말권	300,000
이주영	50,000

이준규	1,000,000
이창주	330,000
이향선	10,000
이현정	30,000
이혜영	37,520
임기자	100,000
임기자	200,000
임민아	3,000
임은민	30,000
장성우	10,000
장세영	20,000
장순석	25,000
장영인	50,000
장준태	100,000
장진희	50,000
전영필	30,000
전주이스턴	64,550
전해진	60,000
정경아	30,000
정백기	100,000
정스런	100,000
정오숙	50,000
정은영이상근	1,000
정은영이상진	600
정혜승	10,000
조산연	10,000
조창순영가	50,000
좋은벗들	294,400
차진욱	10,000
천승진해운대	10,000,000
최미현	30,000
최수연	10,000
최찬일	300,000
하지민	10,000
함미정	30,000
해운대김선	20,000
하영선	100,000
하원진	90,000
홍영숙	100,000
황선덕	100,000
황선해	200,000
황영순	15,000
황정현	5,000
후원금	100,000

미국 JTS		\$1,500.00
2014년 9월		
김미경	\$150.00	
김성호	\$50.00	
김소현&이동근		\$100.00
	\$110.00	
김순미	\$50.00	
김순미	\$50.00	
김윤진	\$70.00	
마이클 양	\$62.00	
박경배	\$40.00	
박경배	\$80.00	
박현수	\$50.00	
시에틀정도회원		\$100.00
유승목	\$20.00	
윤영수	\$100.00	
임선희	\$50.00	
최경숙	\$30.00	
최명숙	\$1,000.00	
최영태	\$100.00	
최은선	\$60.00	
A&J Seattle	\$200.00	
EUJINSUN CHAE		\$100.00
Han choongho		\$30.00
JUNG IE JUN	\$30.00	
JUNG IE JUN	\$30.00	
KYUNG J KIM	\$15.00	
L.A. JUNGTO		\$8,429.57
Linda	\$50.00	
MANSUNG CHOI		\$20.00
MICROSOFT		
MATCHING GIFTS		
PROGRAM		\$300.00
No Suk Yi &Woo		
Bong Yi	\$30.00	
PATTY O KIM	\$50.00	
Seungyong Park		\$30.00
TRIVIUM,INC		\$100.00
YONG SULL		



나눔저금통 현황 (2014. 08. 01. ~ 2014. 09. 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제	11,000 미준 21,840 박옥화 22,470 장정화 27,330
가제법당 8,150 양명선2개 30,190	

경기광주

강인주 29,140 김성자 71,300 김은주 8,970 김정선 20,620 김효정 20,960 문형국 41,550 박성애 24,950 박소영 7,760 신영철 36,960 이미란 24,800 이일중 17,950

경산

박동자 23,570 박복주(윤현세) 22,220 박순분 19,050 박입숙 19,200 백옥교 20,220 백옥교 20,360 이양자 21,020 장선옥 41,410 장선옥 47,720 장선옥 36,870 차경숙 14,350

경주

경주법당 89,260 경주법당 120,920

관악

윤옥희 19,040

광명

김경애 20,030 김명희(김갑식) 18,440 김복분 11,230 서용원 21,740 서용원 59,400 서태원 54,320 이상진 31,840 이용희 19,340 이은미(신상해) 15,460 이혜수(서태원) 58,300 장연순 32,960 장연순 23,530 장효숙(노수정) 23,930 정기성(김나영) 29,630 정기성(이현덕) 31,170 정재연(정지순) 36,000 조남숙 30,210

광주

광주법당 358,770

구미

고은정 18,990 구영란 25,310 김영숙 71,310 김영숙 20,670 도성화 16,970 무명 10,300 송양익 69,830 이현숙 96,780 하경희 19,830 허혜 29,000

기장

강현주 10,880 김영애 15,700 김은희 16,780 무명 20,900 서혜숙 20,950 이수영 18,640 이윤희 31,260 정수진 104,000 정재남 37,520 조원희 80,720 최이준 13,780 홍숙이 18,660

김천

김찬법당 228,980

내서

김영숙 100,000 무명 12,330 무명 13,360 무명

노원

강미라 19,600 김금룡 39,570 김해담 25,970 맹춘재(장용덕) 18,540 무명 5,460 무명23,290 문경 26,030 백주희 19,240 양미숙(이미남) 5,620 이미남 23,190 이미남 8,070 정일남 34,110 정현아 48,670

달서

달서법당 564,070 달서법당 52,410 달서법당 147,250 달서법당 105,880

대구

강소애 28,190 권현주3개 34,060 김남수 24,560 김영숙 17,890 김우현 25,690 김정은 14,990 김현주 13,940 노현송 57,950 노현우 21,720 무명 28,330 무명 31,000 무명 22,400 문선진 9,450 박복주 25,460 박옥경 30,920 방정희 18,370 손태임4개 128,920 윤세민(미소밴드) 30,530 윤진숙 34,510 이미경 15,930 이병철 31,630 이수미 25,810 이유은 9,380 이철수 25,650 이효정 20,670 임금실 42,420 전병득3개 73,550 정중숙 34,130 최민숙 19,070 한주한 24,890 한주현 26,450 홍성녀 10,910 홍성옥 13,340

대전

대전법당 523,330

대전

강봉철35,800 강유리 25,130 광복수 17,990 금송농원 35,880 김국희 27,430 김나현 16,380 김성애 63,350 김태희 10,900 동춘한의원 44,510 무명 14,380 무명 19,390 무명 9,390 무명 17,440 무명 5,910 무명 21,900 무명 22,280 무명 15,000 무명 50,860 박병준 15,140 박현숙 109,100 박혜민 38,430 서영숙 1,840 서영숙 13,340 안호호 31,410 엄지태 12,940 우삼이 34,370 유규빈 22,790 유인자 84,720 유장호 23,240 장성준 17,040 장혁준 21,360 전유진 9,940 정중옥 42,010 정중옥 19,450 조정숙 32,510 조주호 14,040 진상복 15,100 채희숙 31,360 최금규 10,370 최서영 22,710 하정윤 11,160 하지윤 13,430 홍순화 30,510

동래

강점복 20,450 고상현 25,720 권가윤 24,650 김경란 34,380 김경란 30,170 김근희 36,790 김란선 27,340 김상미 15,050 김서연 21,020 김윤옥 46,400 김정옥 16,540 도영숙 14,020 명상민 32,000 무명 49,430 무명 5,070 박경현 21,270 박숙희 14,620 박은정 24,890 박은정 31,080 박

채운 14,450 배중숙 19,210 백기덕 55,910 서원진 20,600 서혁진 38,230 석은미 28,960 송경숙 15,780 송현주 180,750 오명주 19,280 오수영 7,120 오은선 13,620 윤순도 20,790 이기호 25,650 이나금 114,170 이리규 21,690 이민영 27,930 이명숙 8,690 이옥연 15,650 이은희 33,000 이잠숙 23,400 이잠숙 24,500 이주경 10,000 이주경 10,000 이해옥 26,470 장은주 28,510 전귀혜 21,870 전희선 19,150 정덕순 37,010 정미숙 16,830 정순이 39,640 정희옥 13,690 조연희 68,500 조재성 14,400 조홍빈 23,570 최영덕 21,860 허영화 36,230

마산

권진숙 17,760 김소봉 30,020 김정래 17,300 김지연 11,760 노미야 358,250 노태곤 21,470 무명 7,350 무명 25,390 무명 17,860 박남주 20,000 신진아 103,090 어시장 8,910 오유미 37,090 이림사 33,020 이연화 21,910 이영주 15,940 임월화 23,550

마포

남옥희 16,650 박영숙 22,880 박영숙 17,410 박혜상 14,150 윤선희 34,350 최윤섭 21,000 한성근 13,190

문경

문경법당 21,640

부천

부천법당 94,960

분당

신옥미 31,900

사하

김지안 37,950 고연옥 41,720 김기음 31,220 김문주 20,650 김영미 21,840 김영옥 15,090 김옥순 75,200 김정수 11,320 남명희 25,020 남명희 22,530 박갑일 35,200 박헌미 11,260 방성자 27,320 배만곤 14,600 백신아 6,880 사하법당 52,690 서정위 50,150 이미애 5,330 이몽숙 27,000 이몽숙 27,130 장서혜 30,120 장선자 69,600 정말순 6,140 정영아 19,650 정옥미 30,660 정중석 32,200 탁희정 31,220 하경수 94,010 하영애 11,290 허성란 32,920 황옥선 135,130

서대문

5월저금통 86,120 6월저금통 98,150 7월저금통 97,180 8월저금통 63,060

서면

서면법당 105,570 서면법당 298,250

서초

강중열 21,130 고은미 50,700 권나연 19,500 권민준,권민창 21,940 권봉창 28,850 권영위 30,100 권영위 19,050 권영위 25,000 김기범 17,790 김명순 28,690 김미옥 7,190 김삼심 7,250 김선영 11,000 김성진 15,000 김소희 10,600 김영균 19,350 김영옥 6,700 김용수 11,070 김원자 19,000 김정철 한의원 42,400 김지영 43,010 김태영 28,300 김흥조 28,780 김희경(태백) 26,330 노혜경 12,000 농협하나로마트(태백) 9,310 류소연 19,230 무명 27,980 무명11개 431,857 무명11개 249,304 무명17개 198,770 무명17개 453,240 무명2개 43,600 무명3개 130,951 무명6개 367,208 무명 7개 172,442 문나옥 23,740 문명희 33,820 박경희 32,000 박윤정 135,810 박정아 24,620 박종길 3,800 박종배 15,510 박희중 25,190 백승민 8,070 백영임 19,000 법률 36,150 서한주 30,100 손애찬 16,310 손주찬 17,110 송경숙 25,400 송다은 19,100 송명순 41,230 송문미 25,000 송재원 11,000 심웅찬 22,200 심유현 29,670 심유현,고은설 48,530 안명숙 54,840 안상옥 20,000 안수원,안영진,안경준 70,240 안윤진 22,100 양은주 16,150 엄용철 19,520 오은섭 9,680 유미랑 77,790 유지훈 43,300 유현수 31,830 유현수 44,310 윤귀현 25,070 윤옥희 66,000 윤정희 5,300 은취 21,320 이벽주 18,170 이상든 21,600 이상엽 20,100 이상혁 20,130 이상희 28,000 이세연 11,050 이수혜 23,700 이승아 21,000 이어은 11,270 이영미 25,700 이영미 23,710 이영자 14,820 이은정 28,530 이은정 20,000 이은주 17,930 이정근 79,980 이정호(평창) 27,360 이지은 23,170 이창림 43,910 이희정 16,620 임금순 15,290 정윤수, 장지수 45,650 정은주 19,980 정춘희 57,270 전봉해 15,310 전윤환 23,970 전현정 33,600 정미자 14,960 정수안 21,400 정의환 22,000 정재민 21,400 조주은 21,910 조혜숙 55,500 지양순 45,000 차순남 50,000 최명숙 42,120 최시철 24,000 최이준 22,000 최재원 11,050 하정연 81,140 한민규 5,170 활경자 34,160 해남순 50,000 허순정 16,000 허영순 32,000

송파

무명 36,260 박희정 27,430 이재희 16,730

수원

고재필 92,280 권인숙 20,840 김명숙 24,000 김문주 25,600 김미영 17,200 무명 32,690 무명 94,090 무명 50,000 박선영 43,920 윤인선 32,140 이근 28,610 이경미 23,580 이말순 26,940 이명선 28,070 이주희 12,990 조윤선 44,680 채원희 28,820 황경란 10,000

안양

안양법당 14,230 오정희 20,560

양평

이석형 42,910 이란슬 31,190 조선 22,650

울산

공경일 22,370 권태수 35,030 김도형 27,860 김영주 77,160 김원숙 35,460 김일명 30,300 남연주 19,530 대방낙지 18,920 대호 5,240 돈배둔가 4,090 새빛치과 670 서동민39,090 손득래 23,460 심숙희 41,000 심숙희 41,200 오진계 14,750 울산번호판 7,890 유명화 28,890 이두남 26,280 이명자 27,470 이운성 55,820 장대균 28,910 제뉴어리레스토랑 62,850 최명숙 23,700 최병용 40,660 축협(중앙) 15,790 탐페밀리 19,530 태화병원 100 한양스토아(옥동)51,830 한양스토어 44,870 화정몸프라자 112,670 황해주 54,550 LIG메지카 7,030

원주

원주법당 56,850

의정부

김향희33,010 손정순 22,720 이정화 27,900

인천

최양순 36,940

전주

박부선 17,510 징옥화 21,800 전주법당 55,970 전주 법당 151,920

정관

정관법당 54,000

진주

강수현 36,430 무명 75,470 손경미 19,530 이미정 16,630 이명숙 49,950 이정영 29,180 이지연 23,040

창원

강옥순 10,250 권현숙 18,150 김래동 16,900 김미숙 15,000 김미화 30,360 무명 23,600 무명 15,950 무명 19,000 박대원 33,700 박한주 23,600 배선화 20,760 손민실 5,680 이상옥 28,410 이숙미 21,480 이명숙 22,520 이정숙 26,260 정명희 23,220 조해숙 27,000 진봉순 9,430 표해숙 37,430 하숙이 19,760

청주

김범석 34,730 김지양 12,040 김현중 35,950 내윤경 9,630 무명 101,910 박미자 24,210 신하경 27,150 우서정 23,180 윤귀예 22,310 은경민 23,830 이황휘 45,440 조정심 27,850 청주법당 32,440 황희정 5,950

평택

김해정 31,120

포항

포항법당 49,520

함안

무명 14,820 박남규 20,500 이연남 15,330

해운대

강혜인 13,450 김동명 6,030 김두필 10,700 김순연 16,270 김영숙 22,460 김영화 21,590 김춘생 11,850 노진희 30,000 양달배 35,410 조영란 4,650 조해정 23,649 차명진 21,600 차정훈 28,960 천승진 18,011 최창숙 31,410 해운대법당 286,680 해운대법당 280,290 허춘희 10,100 황순옥 15,860

기타

강현숙 29,760 고부근 20,300 권영수 38,700 김경희 22,020 김라옥 25,000 김선화 10,190 김정선 16,700 김현순 38,790 김혜란 21,840 김혜안 33,620 무명 4,123 26,170 문경숙 24,600 박보선 41,200 박상미 76,580 박정순 58,410 박중연 35,400 박종길 33,840 신들바람공부방 23,470 서해정 32,940 송승수 38,990 신명훈 27,500 안영민 25,540 엄경희 30,290 유연수 23,720 우희수 14,730 윤정환 52,000 이대일 19,570 이범인 137,510 이정심 200,000 전해빈 183,670 정선옥 33,350 정원자 36,560 정도법당 53,760 조한영 8,220 조한희 10,350 채재현 100,710 채정숙 32,920 최미애 29,180 최희범 79,400 한승명실래 9,600

거리 모금 현황

2014년 08월 01일부터 2014년 09월 30일까지

강서 122,700
거리모금(실천과제) 239,900
거제 438,800
경기광주 57,630
경산 233,090
관악 78,600
광명 374,020
광주 2,266,490
구미 195,420
김천 239,450
김해 969,180
김해장유 84,200
남양주 33,100
내서 214,710
노원 1,700,440
노원중2-2반 130,070
달서 366,830
대구 2,929,489
대전 448,060
동래 763,250
동작 134,400
마산 499,280
부천 405,310
사하 103,580
서대문 184,960
서면 60,000
서초 514,340
서초김명순 360,950
서초박은주 468,500
성동 319,250
송파 427,210
수원 822,520
안동 561,300
안양 456,270
양산 60,170
양천 150,880
영주 333,310
용인 493,820
울산 639,530
위정부 49,100
인사동무금 391,760
인천 200,760
일산 411,190
전주 201,350
전주이두원 24,740
전주이스턴 64,550
전주 아진수 40,790
전도법당 145,000
제주 145,000
진주 389,700
청원 610,576
천안 294,400
춘천 278,490
태전 376,950
평택 383,810
포항 848,330
해운대 321,73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